

SWNA-ANSW over the Last 10 Years

SWNA-ANSW, 지난 10년 편집부

Editorial Board

전시명: 맥락 속의 오브제(Objects in Context)

전시 장소: 코사이어티(cociety) 전시 기간: 2021.04.09-18

사진: 홍기웅(CFC)

포스터 및 전시 그래픽: 박신우(Paper Press)



This exhibition introduced design outcomes and processes in many areas, such as design products, furniture, objects, spaces, and environments that the design office SWNA designed from 2010 to 2020. In addition, 10 chairs created by SWNA designers were displayed. With this exhibition, SWNA showed the step-by-step design processes in which the design office dealt with a hybrid of various design fields, media, and materials, and then experimented with them as it centered around industrial design. Objects that SWNA has worked on over the past 10 years enable viewers to understand the attitude, stance, and thoughts SWNA has towards design. Through the hidden process behind a product—from its ideation to release on the market—we can move backwards in our approach to the core part of the design. SWNA is a design office led by Lee Suk Woo, and the name of the company is an abbreviation for Suk Woo and Associates.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SWNA-ANSW," tried to capture the meaning of respect for 10 designers and the chairs they designed by placing "Associates" (symbolizing designers working for SWNA), in front to make "ANSW."

이 글은 디자인 오피스 SWNA가 지난 10년(2010-2020) 동안 디자인한 제품, 가구, 공간,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 과정과 결과, SWNA 소속 디자이너들이 만든 의자 10점 등을 소재로 한 전시 'SWNA-ANSW'를 소개한다. 이 전시를 계기로 SWNA는 산업디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매체, 소재 등을 이종 교배하고 실험한 그들의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준다. 전시에 소개된 오브젝트들은 SWNA가 디자인을 대하는 태도,

생각을 짐작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제품 하나가 세상에

나무 의자 10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

나오기까지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디자인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른다. SWNA는 디자이너 이석우가 이끄는 디자인 오피스로 Suk Woo and Associate의 약자이다. 이번 전시 제목인 'SWNA-ANSW' 는 SWNA 소속 디자이너의 상징인 Associate를 전면에 내세워 디자이너 10명. 그리고 그들이 디자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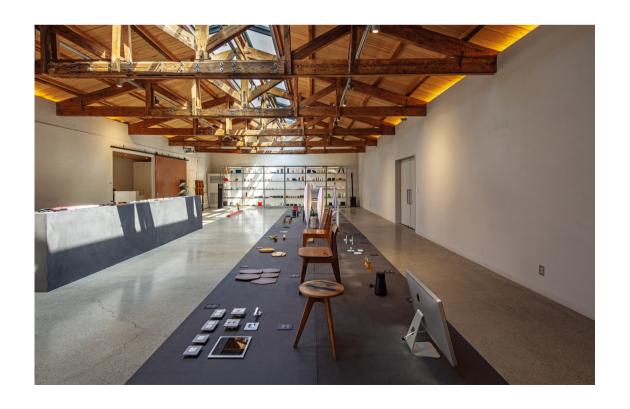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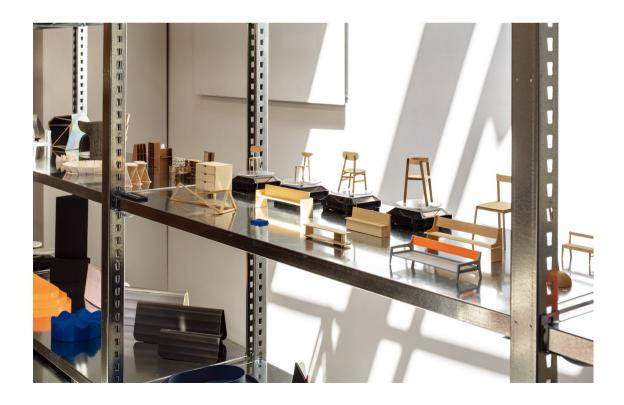
298 전시 리뷰 Exhibition Review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엑스트라 아카이브 3 Extra Archive 3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299







302 전시 리뷰 Exhibition Review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엑스트라 아카이브 3 Extra Archive 3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프로세스북: 코사이어티에서 SWNA의 전시 '맥락 속의 오브제'가 진행되었다. SWNA의 프로세스북에는 스케치와 프로토타입이 포함된 10년간의 작업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세스북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디자인되었다.